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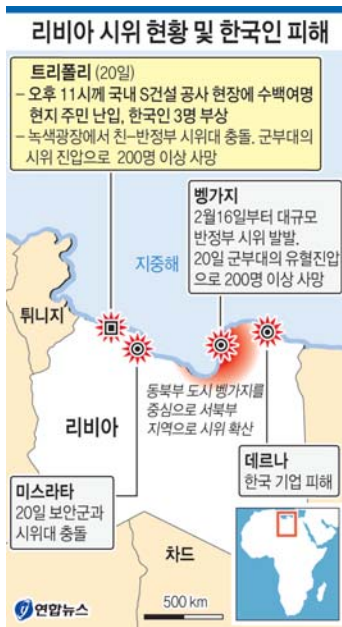
# 40년 독재 카다피 위기...軍 일부도 반기

## 리비아 시위 급속 확산...벵가지 학살 최소 233명 사망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민봉기에 영향을 받은 리비아 시위 사태가 확산일로에 걸으면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40여년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군(軍)도 일부 시위대에 동참하고 있어 일부에서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카다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이프 알-이슬람은 긴급 TV연설을 통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60명이 숨졌으며, 이로써 리비아 시위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3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진압군이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유혈진압에 나서고 있으며, 시위대를 향해 박격포와 대공화기를 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외국 용병들이 진압에 동원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반정부 분위가 확산 = 일부 군인들이 카다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시위대에 합류한 가운데 압테 후니 아랍연맹 주재 리비아 대사도 이날 정부가 무고한 국민을 살상하고 있다

면서 시작하는 등 반정부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하는 모습이다.

에후니 대사는 "시위대는 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카다피는 끝났다. 그는 국민을 잃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만간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벵가지에서 이뤄졌던 반정부 시위가 이날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 해안지역 등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시위 사태를 동부지역에 봉쇄하려던 카다피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무산됐다. '알 와팔라' 부족의 지도자인 아르람 알-와팔리는 "우리의 형제(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우리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리비아를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다피 아들, 긴급 TV 연설 = 카다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이프 알-이슬람은 이날 관영TV로 생중계된 국민 연설을 통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이슬람은 최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붕괴한 이웃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가 아니다"라며 "무기를 들고 마지막 총알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지난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해 온 정권을 순순히 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며칠 내로 '역사적인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내놓겠다고 말해 소요사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개혁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리비아 시위 사태가 확산일로에 걸으면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40여년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상 시위대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제2 도시 벵가지 시위대의 모습.

## 무시... 비난... 반박... 발끈... 광주시-의회 '인권도시 불협화음'

광주시 인권담당관이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 추진을 놓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봉근 시의회의장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데 대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22일 오전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 추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남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광주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업(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계속 추진하고, 시 간부가 이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하는 의장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행자위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시 인권담당관이 지난 20

일 개인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인권도시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원건 인권담당관의 성명 내용 중 시의원들이 상임위나 방송토론회 등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재추진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행자위를 열고 의원 간담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원건 인권담당관은 지난 20일 개인성명을 통해 "해당 상임위나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임위원장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시 의장이 종단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예산 집행계획까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윤 의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고유명사 '진도개'로 표기해야"

### 김영록 의원 주장

"진돗개나 진도개나."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는 고유명사로 '진돗개'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

해 지난해 9월 농림수산 식품위원회에서 통과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3년 진도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면서 진도군 안에서 키우는 개는 '진도개'로 표기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박영기기자 hypark@

## 'M1 소총에서 퇴역 함정까지'

### 전남도, 세계적 무기 박물관 조성 수집 나서

'M1 소총에서부터 퇴역 함정에 이르기까지' 전남도가 세계적 무기 박물관 조성을 내걸고 국내에서 사용했던 무기 수집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이상 쓰지 못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무기를 전남도로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추진키로 했다가 사실상 포기했던 무기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박 지사는 "미리 요청해놓아야 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집 대상은 도검류와 군복에서부터 소총·기관총·박격포 등 총포류와 해군 함정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모든 무기다. 임진왜란을 비롯, 현대의 최전장-테러 장비까지 연대순으로 훑으며 무기 진화사를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무기박물관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 및 남도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취지에서 2009년 추진했던 사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역사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문화상품으로 포장, 지역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韓 공사현장 잇따라 습격 '불안'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 전역에서 한국 건설업체들이 폭도로 돌변한 주민들로부터 잇따라 습격을 받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일 밤 11시(현지시간)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30km 떨어진 국내 S건설업체 공사 현장에 500여명의 현지 주민이 난입해 근로자들과 대치하던 중 한국인 3명이 부상당했다고 외교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또 방글라데시 노무자 2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 위치한 국내 H건설사 공사 현장과 인근 숙소에 현지인들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중장비 등을 훔쳐갔다. 17일과 18일에는 리비아 데르나 소재 W건설의 공사현장과 숙소를 현지 주민 300여명이 잇따라 습격한 바 있다.

## 어설픈 국정원? 특사단 침입 서툰 행각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3명의 정체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테 스파이로 보기에선 너무나 어설픈 이들의 행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21분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신관 19층 1961호에 묵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검은색 정장 차량의 남자 2명, 여자 1명이 침입했

다. 여자도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그런데 특사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6분 뒤인 오전 9시28분께 숙소로 갑자기 돌아오면서 노트북을 만지던 침입자들과 맞닥뜨렸다. 놀란 침입자들은 방에 있던 노트북 2대 중 1대는 그대로 두고 1대만 가지고 복도로 나갔다 이내 돌려주고 도주했다. 다른 물건은 놔두고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노트북만 들고갔다

는 정황상 정보전으로 추정되지만 주도 면밀한 행동과 보안으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정보기관의 '작품'으로 보기에선 어설픈 구석이 너무 많다.

여러가지 정황상 정찰 국내 정보기관이 외국의 정보를 빼내려고 벌인 일이라면 형편이 낮은 정보활동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괴한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이나 성장기 청소년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최근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원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환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원의 이환원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원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상생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상담 전화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디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스포츠 게임 한국		외 다수
	원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주)쉐이커스 문의 전화 070-7581-7766 010-3549-9358